



이 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 소재를 사용한친환경 종이와
공기름으로 제조된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중외(中外) 협력(合作) 협의회(協誼會) 2021-2022 연차(年次) 보고서(報告書)

www.cifc.or.k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1년도 연차보고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관 5층
TEL 02-3705-6279 FAX 02-3705-6288 www.cifc.or.kr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1년도 연차보고서

SHARING KOREA'S FINANCIAL EXPERIENCES & BEST PRACTICES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1년도 연차보고서

CONTENTS

02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간사
04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04	설립배경
05	회원명부
06	주요연혁
08	회원기관 동정(한국자산관리공사)
10	2021년도 사업보고
12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세미나
	-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초청세미나
17	국제기구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세미나
	- 중미경제통합은행(CAEB) 초청세미나
	-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세미나
20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 디지털시대의 금융협력 방안
	- 지식공유사업(KSP/EIPP) 안내세미나
24	연구용역
	-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 캄보디아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 중남미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27	기타사업
	- 해금협 뉴스레터 발간
	- 해금협 홈페이지 개편
28	정례회의 및 워크숍 개최

발간사

회원기관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13년 국내 34개의 공공 및 민간기관이 모여 설립된 이래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금융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최근 설립된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의 추진 등에 힘입어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금융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협의회는, 글로벌 금융회사 및 국제기구 금융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협력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기관들인 23개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경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에 기여한 금융회사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금융서비스들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일원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금융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및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팬데믹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 또한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의회와 회원기관들은 웨비나 개최와 온라인 간담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협력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온라인 뉴스레터의 발간을 통해 금융협력의 글로벌 파트너기관의 인터뷰, 회원기관 심층 탐방, 금융협력 전문가의 기고 및 팬데믹 관련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상황속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금융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코로나19가 어느덧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저희 협의회는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변화된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금융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기관의 변함없는 성원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협의회는 올해로 설립 9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과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원기관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기관 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추진을 통해 해외진출의 지평이 확대되시기를 기원하며, 해금협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 금융협력이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차우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소개

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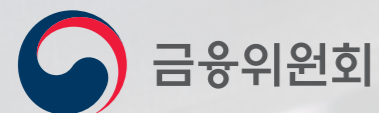
설립배경

해외금융협력협의회(Council 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IFIC)는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 23개 공공 및 민간 금융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금융협력 협의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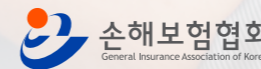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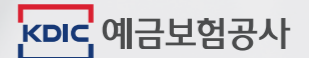
회원기관들은 그 동안 축적해온 금융부문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 주요 협력기관들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회원기관들의 글로벌 금융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 협력국가의 정책당국 및 협력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매년 금융협력포럼,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금융부문의 글로벌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PARTNERS



회원명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13-2021년 주요연혁

2013

- 2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활동 시작
- 6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초청 및 한-우즈베키스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1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해외금융협력 간담회 개최
- 1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및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2015

- 5월 베트남 경제부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 7월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회사 해외 진출 간담회 개최
- 10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및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14

- 5월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미얀마-아시아개발은행 금융협력포럼 개최
- 8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및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제1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16

- 6월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개최
- 8월 태국 재무부, 중앙은행, 신용보증공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초청 및 한-태국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0월 이란 재정경제부, 증권위원회, 예탁결제원 초청 및 한-이란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17

- 6월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초청 및 한-베트남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7월 한-몽골 금융협력포럼 개최
- 9월 한-태국 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제4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19

- 6월 아르메니아 해외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 및 한-아르메니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7월 한-중남미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9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개최
- 12월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21

- 5월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6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초청세미나 개최
- 8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경제담당관 초청세미나 개최
- 11월 지식공유사업(KSP/EIPP) 안내세미나 개최

2018

- 3월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 8월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한-캄보디아 협력강화 방안 검토 세미나 개최
- 9월 인도네시아 해외공무원-금융협력관계자 초청 및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 12월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 개최

2020

- 7월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9월 코로나 시대 금융기관 해외사업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 10월 중앙아시아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 11월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신시장 확보 전략 세미나 개최

회원기관 동정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해금협")는 2013년 설립된 이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협력사업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23개 회원기관들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캠코")는 해금협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금융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회원기관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출발하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국내에서 공적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개발 등 정부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코는 60년의 세월 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며, 가계·기업·공공 전 부문에 있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유관기관에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자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KSP, KOICA 등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공유사업 고도화"의 사업목표 아래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MDB)의 다양한 개도국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ADB),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EBRD), 페루, 에콰도르(IDB) 정부 및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안정성 제고, 부실채권 정리, 국유부동산 관리 및 개발 등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연수·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캠코는 고유 업무를 기반으로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온라인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에 대한 '연수-컨설팅-시스템 수출'의 사업모델을 완성하여 수원국을 위한 실질적인 IT 솔루션 제공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개도국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캠코는 성공적인 국내·외 부실채권 정리 경험과 WB, ADB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역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가 처한 글로벌 사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해지고,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해금협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확대된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회원기관의 해외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과 같이 키워온 60년 역사를 넘어, 같이 키워갈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는 캠코의 변화와 도전에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 남 주

2021

2021

사업보고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세미나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5월 28일(금)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시장 현황 및 향후 금융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의 진출수요 및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를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코로나 시대 속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시장의 변화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아세안 진출현황 공유 및 해외진출시 고려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박종규 의장이 개회사를,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환영사를,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우마 하디(Umar Hadi) 대사가 축사를 맡았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총재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임성남 대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경제전망과 정책대응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 총재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① 인도네시아 경제전망과 정책대응, ② 긴밀한 정책적 공조, ③ 인도네시아의 투자기회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은행의 디지털화, 온라인 이체의 발전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 7%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모두가 긴밀한 정책공조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5가지 정책대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이동량 증가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접종 확대 정책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시행된 재정부양정책과 경제 디지털화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GDP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역시 확장적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지급결제의 디지털화, 이슬람 경제 및 금융을 포함한 여러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디지털화 현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QR표준(QRIS)의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가 활성화 되었으며, 간편결제시스템 'Bank Indonesia-FAST 페이먼트'의 개발로 실시간(24시간)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복, 시장인프라, 지급결제인프라, 디지털화, 규제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시장개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도입된 일자리 창출법을 기반으로 11개의 클러스터 개혁이 추진 중이며, 이를 기점으로 2045년까지 전세계 5대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여 4가지 협력분야를 선정했으며, 양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스왑협정(BCSA)을 체결하여 현지통화 거래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무궁무진한 기회와 긍정적 전망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공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협력의지를 역설하였다.

금융협력센터 설립배경 및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방향

임성남 | 대사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임성남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① 한-아세안 금융협력 현황 및 수요, ② 금융협력센터 설립취지 및 주요기능, ③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전 세계에 분포한 한국금융기관 중 35.1%가 아세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숫자의 급속한 증가는 주요 금융협력 파트너로서 강화된 아세안의 입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현재 31개의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은행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는 인도네시아의 Bank Negara Indonesia가 있어 한-인도네시아 간 금융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아세안의 금융협력 수요는 매우 높으며 ① 금융 디지털화, ② 금융인프라 형성 및 개선, ③ 금융 전문인력 양성, ④ 2025 아세안경제공동체 수립 등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금융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① 신남방정책 일환으로의 상생발전, ② 한국 기업진출 촉진, ③ 대(對)아세안 금융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융협력센터는 2019년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간의 합의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아세안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협력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금융협력의 확대, 우리기업의 진출기회 확대, 인프라 투자 참여 확대 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협력센터의 주요 기능

1	금융협력 확대	- 지급결제, 예금자 보호, 신용 정보화 등 '아세안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 아세안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수요'를 집적화하여 체계적 운영 - 해금협과 '현지 금융협력포럼' 공동개최 검토
2	한국기업 진출기회 확대	- 금융형 공공기관 해외 진출 - 금융회사 진출 - 중소 제조업 금융접근성 제고
3	인프라 투자 참여 확대	- 사업 발주 초기 불확실성 해소 및 리스크 분산 - 아세안 역내 주요 인프라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 수주 이후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 프로세스 촉진

마지막으로, 한-인도네시아 협력을 위해서는 풍부하고 젊은 인구, 급성장 중인 디지털 बैं킹 등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잠재성과 통합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금융협력센터의 대(對)인도네시아 업무협력 방안으로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지원,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촉진,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와 투자협력 파트너 모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 외국대사관 초청세미나 우즈베키스탄 경제·금융시장 발전현황 및 전망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8월 3일(화) Zoom(줌) 화상회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금융시장 발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주한 외국대사관 경제담당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담당관 및 재무부 실무자를 초청하여 코로나시대 속 경제·금융시장의 변화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참사관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자본시장발전국 부국장 압보스 주라바예프(Abbos Djurabaev),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결제시스템국 부국장 수크흐라트 파이줄라예브(Shukhrat Fayzullaev)와 중앙은행 수석 경제연구원 바크티요르 무로둘라예프(Bakhtiyor Murodullaev), 우즈베키스탄 산업전략개발 녹색경제 에너지효율국 부국장 코밀온 몰라보예프(Komiljon Mullaboev)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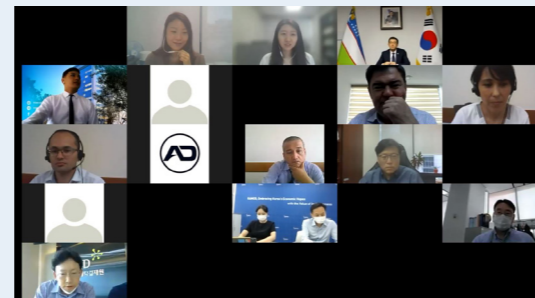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과 자본시장발전전략 및 전망

Abbos Djurabaev | 자본시장발전국 부국장 |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Abbos Djurabaev 자본시장발전국 부국장은 ① 우즈베키스탄의 자본시장 육성 프로그램, ② 자본시장 입지, ③ 자본시장 개발 비전과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나 투자자 권리보장에 대한 법 부족, 주식시장의 전문 참여자 부족, 시장 참가자의 금융지식 부족, 적절한 기업지배 구조의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적은 편이고 채권시장은 정부 및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일부 전문 참여자들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소수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규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실적을 강화하고 국유기관 및 국유은행의 IPO를 장려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개발청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의 전략 및 로드맵을 수행할 모든 기능을 재무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개발 비전으로 시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속가능한 발전지원을 언급했으며, 궁극적 수혜자는 시민, 투자자, 그리고 모든 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발전국의 주요 업무

1	투자자 권리 보호
2	시장에서 전문적 활동 인허가
3	자본시장 법률 이행 감시
4	적절한 절차 및 규정 수립
5	자본시장 동향 및 개혁에 관한 대중과 투자자 업데이트
6	시장 참여자에 의한 투명성 및 정보공개 보장



이어서, 자본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2021-2023년 핵심성과지표(KPI)로 ① 증권 발행액을 GDP의 5%까지 증가, ② 회사채 발행 증가, ③ 지역 투자 프로그램에서 증권 발행에 의한 재정확보 프로젝트 비율 증가를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향상, 투자자 기반 확대, 국제 금융결제기관과의 협력, 적절한 법체계 개발, 자본시장 참여자 훈련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IPO, SPO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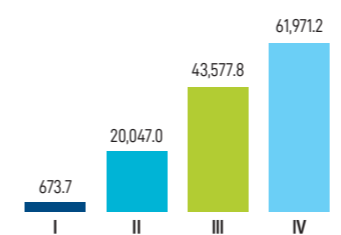
소액결제시스템 인프라 현황과 전망

Bakhtiyor Muradullaev | 수석 경제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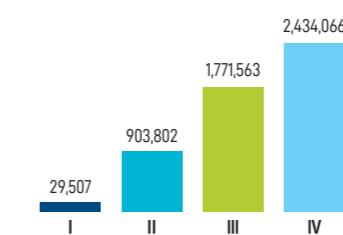
Bakhtiyor Muradullaev 수석 경제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결제시스템 인프라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결제시스템 인프라 현황으로 ① 은행 간 결제시스템, ② 청산결제시스템, ③ 즉시결제시스템, ④ 카드 결제시스템, ⑤ 21곳의 다양한 결제기관 등 5가지 결제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결제기관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은행 간 결제시스템의 경우, 팬데믹 영향으로 실시간 거래건수가 2019년 대비 약 24% 감소된 상황인 반면, 청산결제시스템은 국가에 수납하는 수수료 및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2019년 대비 약 24%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2월 즉시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24시간 365일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간편한 세금납부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3월 QR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Instant Pay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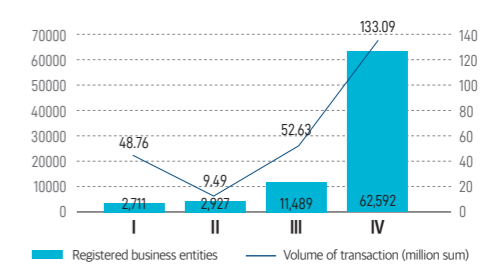
The volume of transaction (billion sum)



Number of transaction



Transactions through QR-online system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은행들이 무현금 결제시스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UzCard와 Humo 등 소액결제 인프라가 발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시스템인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와도 협력 중이며 은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시장, 백광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ATM기 설치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제시스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간의 경쟁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를 위해 무현금 결제시스템 및 전자화폐 유통에 대한 법제가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다섯 종류의 전자화폐 시스템이 있으며, 은행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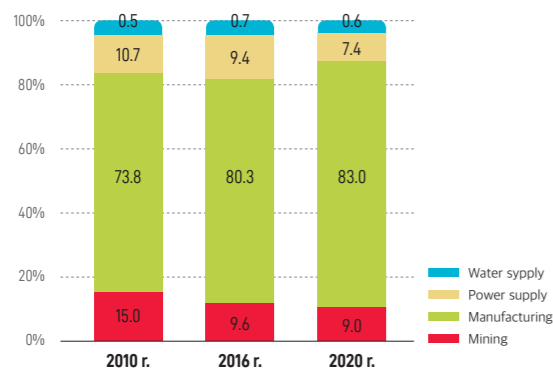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결제시스템의 전망으로 ① 원격 인증서비스 발전, ② 정보보안 분야의 관심 증가를 언급했다. 생체인식과 같은 새로운 인증방법의 도입은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도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 진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핀(fin)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정보보안 및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위협 및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예방법과 대응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과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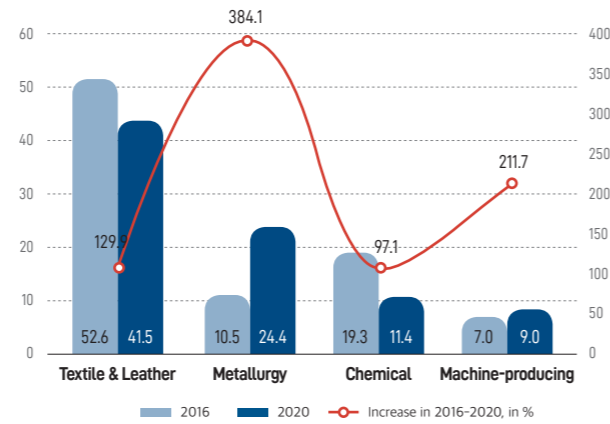
Komiljon Mullaboev | 산업전략개발 녹색경제에너지효율국 부국장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Komiljon Mullaboev 산업전략개발 녹색경제에너지효율국 부국장은 ①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 정책 및 성과, ② 2030년까지 달성할 산업개발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후반부터 구조개혁을 시행하였으며, 2017-2021년 발전전략에서는 다변화, 첨단 제조업,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전체 산업의 83%를 차지하는 등 경제 전체에서 산업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4년간 경제개혁의 결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출품목이 확대되고 수출이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완제품 라인업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010-2020년 산업 총부가가치의 구조적 변화(전체의 %)



산업 점유율 - 제조업의 주요 수출품



이어서, 산업전략의 성과로 자유경제구역 및 소규모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클러스터 구축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법 제도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에 도입된 클러스터 체제는 농업 및 섬유산업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간의 파트너십 및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UNIDO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지수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반면, 산업발전의 제약으로는 리스크 요소들, 부족한 산업시설, 세계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ADB와 공동연구로 채택된 2030년까지의 산업전략은 제조업 분야의 산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빈곤퇴치를 위해 ① 경제 자유화, ② 시장 메커니즘의 폭넓은 도입, ③ 국가 역할 최소화, ④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발전 주 목표로는 ① 1인당 GDP 3배 증가, ② 낮은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 ③ 3배 이상 수출품목 증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의 전략적 최우선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11개의 산업분야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호혜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9개 분야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최우선 과제

1	경제구조 개혁 및 경제 다변화 심화
2	자본집약적인 투자정책을 보다 자본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정책으로 재조정
3	단일기술정책을 통한 첨단기술시대로의 변화가능조건 완성

국제기구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세미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초청 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6월 25일(금)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를 통해 중미 시장의 잠재성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신탁기금 소개를 주제로 국제기구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중남미국가에서 추진중인 금융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중미경제통합은행과의 후속사업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지점 김동준 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미시장의 잠재성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신탁기금 소개

김동준 | Executive Director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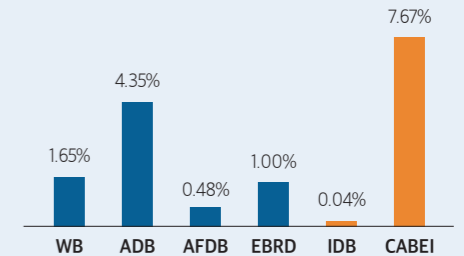
김동준 이사는 중미경제통합은행 소개 발표를 통해 ① 중미 시장 잠재성, ② CABEI 소개, ③ 한국의 CABEI 가입, ④ CABEI Korea Trust Fund(KTF) 등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중미의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하고 젊은 노동인력, 높은 거점지역으로의 역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중미 시장의 잠재성을 강조했다. 중미 8개국은 경제·정치·사회 통합을 목표로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를 구성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자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을 창립했다고 전했다.

또한, CABEI 회원국은 5개의 역내창립회원국, 3개의 역내비창립회원국, 7개의 역외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ABEI는 국제기구들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중미지역에 투자 및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CABEI 가입으로 인해 CABEI의 신용도 및 신임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CABEI 회원국 현황

역내창립회원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역내비창립회원국	벨리즈(2006), 도미니카공화국(2007), 파나마(2007)
역외회원국	대만(1992), 멕시코(1992), 아르헨티나(1995), 콜롬비아(1997), 스페인(2005), 쿠바(2018), 대한민국(2019)

MDB별 한국의 지분율 비교 (%)



한국은 1995년부터 CABEI 가입의사를 표현했고 2018년 한-중미FTA체결을 계기로 2019년 12월 가입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CABEI에 대한 한국의 지분율은 7.67%로 한국이 가입한 다자개발은행들 중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CABEI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을 설명했다. 더불어, CABEI를 통해 한국과 쿠바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졌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지위와 위상 덕분에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준 이사는 CABEI 한국신탁기금의 구속성(Tied) 기금 운용방식을 언급하며 CABEI에서는 한국기업의 실제 사업수행 비중이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프라, IT, 금융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에 관해 타겟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국과의 공감대 형성 후 CABEI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기구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세미나 아시아개발은행(ADB)신탁기금 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5월 28일(금)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활용한 한국금융의 글로벌화 촉진방안을 주제로 국제기구 금융시장 개발 프로젝트 안내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개발도상국의 금융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개발은행의 금융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회원기관이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속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의 이형렬 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활용한 한국금융의 글로벌화 촉진 방안

이형렬 | Principal Financing Partnerships Specialist | 아시아개발은행(ADB) 필리핀 마닐라 본부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국

이형렬 국장은 ① ADB 신탁기금 소개, ② 대한민국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ADB 협력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기획재정부의 주도 하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신탁기금을 설치했으며, 국제기구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전문성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형성된 신탁기금을 통해 우리나라 기관 및 기업들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ADB 신탁기금은 ADB의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TA)사업에 활용되는 자금으로 ADB의 TRTA(Transaction TA)사업 및 KSTA(Knowledge and Support TA)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ADB의 TA 사업 종류

TA사업 종류	설명	예시
TRTA(Transaction TA)	본 프로젝트(Lending Operation)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사업과 준비사업을 지원해주는 자문사업	F/S(Feasibility Study), Pre-F/S, 교육훈련 등
KSTA(Knowledge and Support TA)	본 프로젝트와 별도의 독립적인 지식 협력 및 자문 서비스	제도 설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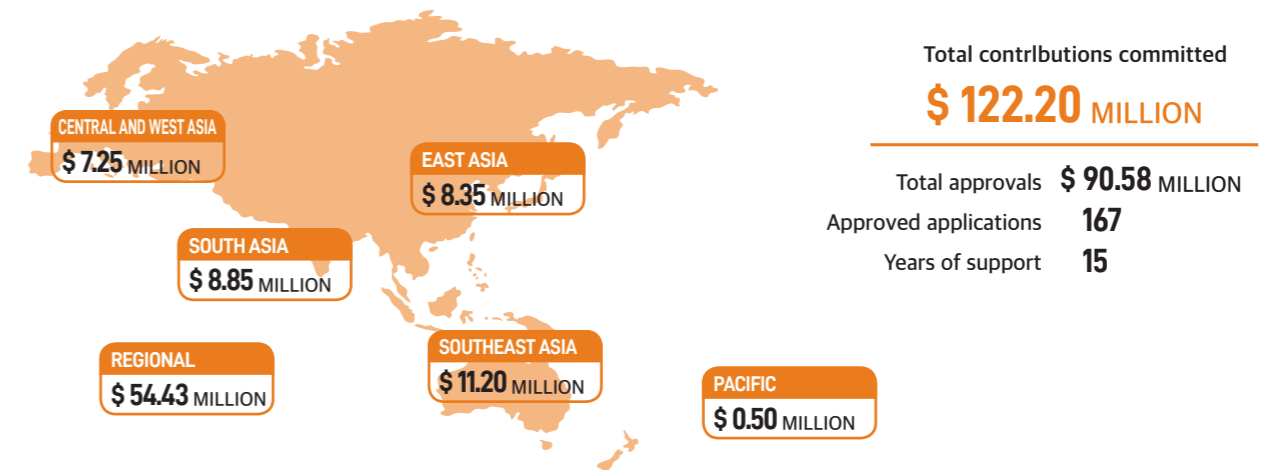
특히, 국제기구 TA사업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선진국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컨설팅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공적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구속성 원조(tied assistance)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TA사업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e-Asia 펀드는 2006년 처음 ADB에 한국이 창설한 펀드라고 소개했다. 이 펀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2020년까지 약 15년 간 9천만 불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지역별 지원금액 규모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 및 서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서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전 분야를 지원하며, 한 프로젝트 당 오십만 불을 기본으로 중요도에 따라 백만 불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 지원분야는 인프라, 스마트 시티, 재생 에너지, 건강, 금융 등이 있으며, 특히, 금융분야의 총괄 디렉터를 한국인이 담당하고 있어 한국 금융공기업과의 지식협력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DMC에 대한 자금 지원 현황(2006-2020)

Operations in 2006-2020

Supported all DMCs (regional and country-specific initiatives)



또한, e-Asia 펀드의 운영방식은 매 분기마다 ADB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Officer)들로부터 자금 지원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한 후, 한국정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수행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ADB와 상의하고, 변화가 있을 시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음으로, ADB와 한국 금융공기업의 네 가지 협력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공개 입찰을 통해 ADB에 컨설턴트나 컨설팅 회사로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이다. 이는 네 가지 방식 중 제일 바람직한 형태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한국은 이 방식을 최종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협력 파트너로 TA사업의 공동연구 또는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이러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발표자로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한국이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식인 교육훈련 제공 방식으로, 제도 연구 이전에 제도교육 및 현장견학 등을 하는 방법이라고 전달했다. 특히, 이형렬 국장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ADB와 협력 준비를 할 경우 기관의 의지, 기관의 역량 및 경험, ADB와의 네트워크, 민간 컨설팅 기관과의 컨소시엄 등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디지털 시대 금융협력 방안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10월 15일(금) Zoom(줌) 화상회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 금융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새로운 비대면·디지털시대의 금융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삼성KPMG 디지털본부의 황태영 상무를 발표자로 초청했다.

디지털 시대 금융협력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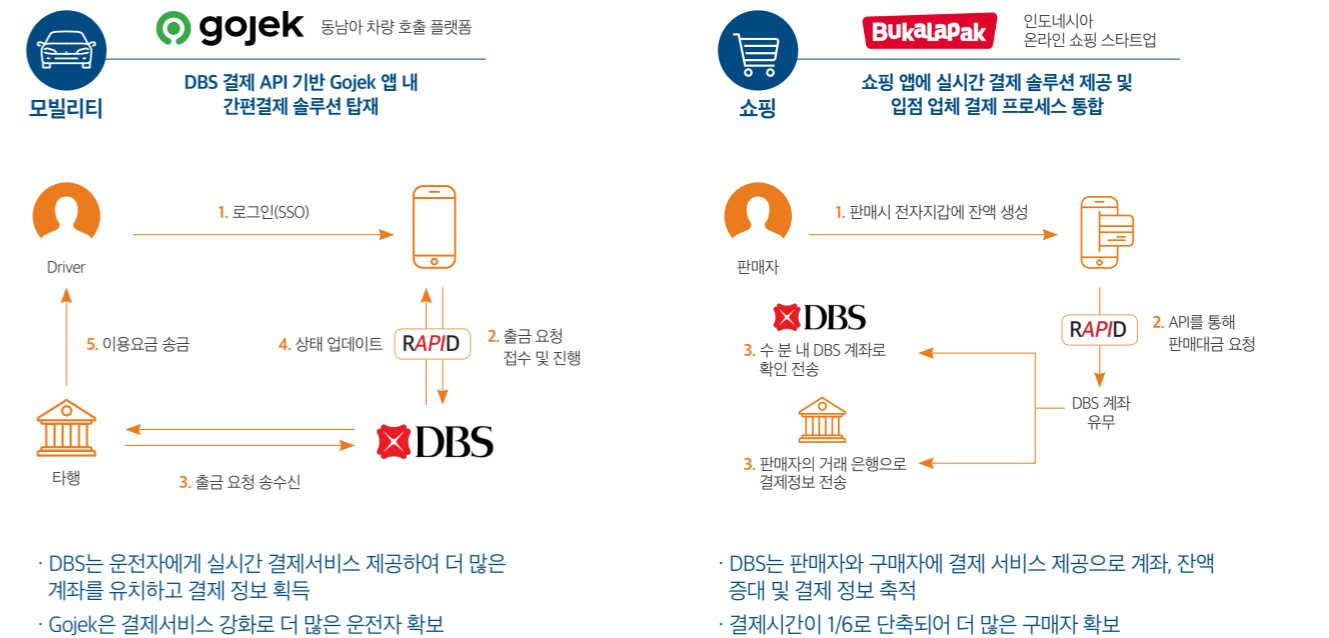
황태영 | 상무 | 삼성KPMG

황태영 상무는 디지털 시대 금융협력 방안 발표를 통해 ① 디지털 전환의 목표와 5대요소, ② 싱가포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BS)의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달성요인, ③ 해외진출 방향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목표 3가지로 1. 빅테크 수준의 비즈니스 스피드 달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실험과 실패를 용인하는 유연성을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5대요소 Operational Backbone, Shared Customer Insights, Digital Platform, External Developer Platform, Accountability Framework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5대 요소

1	Operational Backbone	신뢰할 수 있는 거래와 고객 데이터를 산출하는 표준화되고 통합적인 일련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Shared Customer Insights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변화하고 기술이 그 요구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직의 학습과 이해
3	Digital Platform	디지털 오퍼링을 레고 블럭처럼 신속하게 구현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및 인프라 요소의 저장소
4	External Developer Platform	디지털 플랫폼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저장소
5	Accountability Framework	자율성과 조율의 균형을 맞추는 디지털 오퍼링과 디지털 구성요소에 대한 책임의 배분

다음으로, DBS의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에 대하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갖춘 디지털 컴포넌트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DBS는 약 300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자 플랫폼을 내외부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전했다. API 플랫폼 활용의 대표적인 win-win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의 차량 공유 플랫폼 '고젝(Gojek)'과 온라인 쇼핑몰 '부칼라팍(Bukalapak)'을 소개했다.



또한, DBS는 지속적이고 빠른 혁신을 위해 은행 조직 자체를 비즈니스와 IT의 결합인 'two-in-a-box' 모델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의 특징은 Cohort Unit의 구성과 경영층의 역할 변경이라고 언급했다. Cohort Unit은 기획자,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인프라 담당자 등 약 5명의 인력이 하나의 비즈니스 단위(Unit)로 구성되어 해당 비즈니스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층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진이 모든 절차를 승인하던 구조에서 코칭에 중점을 두는 구조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DBS는 디지털 전환 이후 과거 방식의 글로벌 확장은 효과가 미비하므로 온라인 बैं킹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AI 채팅 플랫폼 Kasisto를 예로 들면서 모든 बैं킹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상중인 시스템 중 필요한 기술에만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DBS는 'Bank Less'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노력을 5년 이상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태영 상무는 디지털 시대의 해외협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진출 시 현지파트너 모색과 현지상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차이가 발생할 때 해외시장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지식공유사업(KSP/EIPP) 안내세미나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11월 19일(금)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를 통해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소개와 국제협력사업 운영방식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KSP와 EIPP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KDI CID)의 권경덕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지식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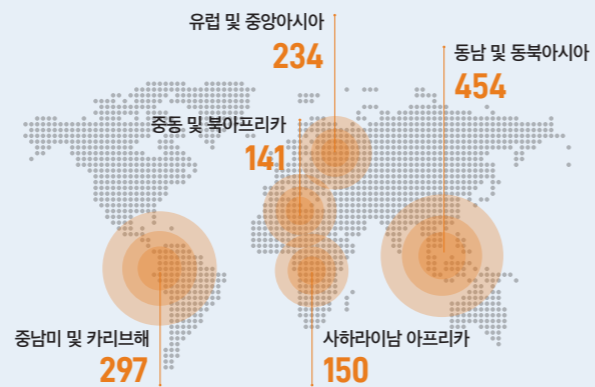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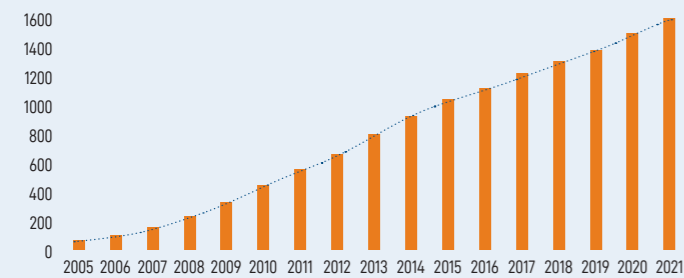
권경덕 | 전문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권경덕 전문위원은 ① KSP 사업 소개, ② EIPP 사업 소개, ③ 국제협력사업 운영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KSP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한국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04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결의된 이후, 지식공유 및 민간 부분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지식과 개발경험을 협력대상국의 상황에 맞게 전달함으로써 대상국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KSP의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이며, 한국개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각각 경제사회발전, 무역투자, 건설인프라에 대한 심층연구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양자 KSP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의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을 통해서도 KSP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KSP 사업 현황에 대해 87개의 국가 및 10개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약 1,500개의 주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아시아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아프리카와 남미를 언급했다.

KSP 추진현황

87개 국 10개 국제기구
1,370개 정책과제 (2004-2021)



이어서, KSP 협력분야는 중소기업정책, 지식기반 경제구축, 인적자원개발, 무역 및 수출진흥, 경제개발계획, 농촌개발, 재정정책, 거시금융정책 등이 있으며, 요청수요가 가장 많은 주제로는 인프라, 환경 및 에너지,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ICT)을 언급했다. KSP 주요 성과로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한국의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업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경덕 전문위원은 KSP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시작단계에서는 사업 수행연도 1년 전부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그 후 약 8, 9개월간의 사업수행과 약 2, 3년간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성과확산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따라 다르나, 보통 3억 정도의 예산과 총 4차례 현지 사람들과의 소통기회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착수보고회, 현지세미나, 최종보고회는 현지 출장으로 진행하고, 중간보고회는 현지 사람들을 국내로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KSP 사업추진 단계 및 방식



다음으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은 2019년 신설된 사업으로 KSP를 진행하는 3개 기관에 더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참여하고 한 국가당 2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또한, 목표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이며 3년 이상의 다년도 종합정책자문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2019년 당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성과를 기대하며 추진했으며 각각 전력, 인프라 진출, 수도 이전 등을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추진상황이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미얀마 개발의 협력 중단을 예시로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경덕 전문위원은 국제협력사업의 특성상 해당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나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 및 형식적인 문서교류 등으로 제한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현지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 및 동영상 전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국 실무자들의 배경지식과 관계없이 활동모듈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국제협력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예로 한국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시스템보다는 역사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KSP 사업을 잘하고자 한다면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분명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용역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에 대한 심층연구

▶ 전체개요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진출 희망수요가 가장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남미 3개 국가별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한 심층조사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시장 현황, 디지털화 및 금융보안 등을 분석하여 해당국에 대한 금융산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 유망분야 식별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외부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국가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인하대학교 이민환 교수(베트남 연구용역), 동국대학교 현정환 교수(캄보디아 연구용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조희문 교수(중남미 연구용역)가 선정되었으며, 각각 5개월(2021년 7월 30일(목)부터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3개월(2021년 11월 22일(월)부터 2022년 2월 28일(월)까지), 2개월(2021년 12월 20일(월)부터 2022년 2월 28일(월)까지)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I.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이민환 | 교수 | 인하대학교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위탁연구용역은 베트남 경제, 금융환경 및 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동 연구 내용은 베트남의 경제현황,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정책대응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환경 및 인프라, 정보보안 산업, 한국의 정보보안체계와 시사점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베트남 금융산업 분석 및 진출전략에 대해서는 은행시장, 보험시장, 금융투자업, 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베트남 진출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베트남 경제현황으로는 코로나 발병 현황, 거시경제 현황, 2022년 전망, 베트남 소비시장 전망 및 국내기업의 탈 중국화에 따른 베트남 진출 강화에 대해 다루었다. 디지털화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제 및 과제, 국내 금융사의 진출전략을 분석하였다. 특히, 베트남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지급결제분야임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지급결제사업자 및 가상자산관련 업체를 소개하였다. 금융보안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체계 추진 과정과 체계 및 법령, 정보보안 산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각 업권별 금융산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진출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 국외지점, 사무소 등 해외진출 형태 별 장단점을 비교하며 단계별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효율성을 증시한 해외사업 조직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I. 캄보디아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현정환 | 교수 | 동국대학교

캄보디아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위탁연구용역은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경제와 금융환경을 분석하고 금융보안 현황,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시장, 공적원조(ODA) 평가 및 신규 대상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현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동 연구 내용은 먼저 캄보디아의 실물경제, 금융부분 등의 거시경제 현황과 중앙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동향 등 금융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산업 발전전략, 포용금융 전략, 캄보디아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정책 체계 2021-2035, 2019-2023 AML/CFT 전략 및 ASEAN 차원에서 ICT 협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캄보디아 금융보안에 관해서는 사이버 보안, 현지 금융회사의 사이버공격 사례 및 동향, 금융보안 거버넌스 및 전자상거래, QR 코드, 전자서명 등의 법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또한, 캄보디아의 신용정보원(CBC), 신용보증공사(CGCC) 등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및 신용 보증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신용평가 정보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발전을 위한 지원,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예금보호제도 도입 컨설팅 등 캄보디아에서 기존에 시행된 금융부분 ODA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들 신규 ODA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금융보안 분야 등을 제시했다.

금융 관련 ODA 제공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 제목	금액	기간	주관부처
캄보디아 자본시장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1.8	2007.2 ~ 2009.12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지원	3.0	2014.1 ~ 2017.12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8.1	2016.6 ~ 2020.12	캄보디아 중앙은행
예금보험제도 도입 컨설팅	-	2018.1 ~ 20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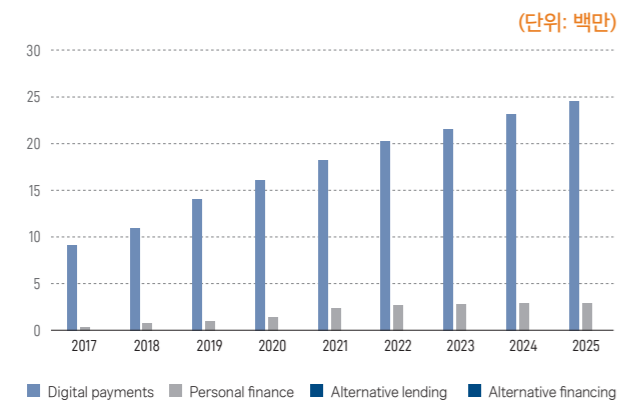
자료: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

III. 중남미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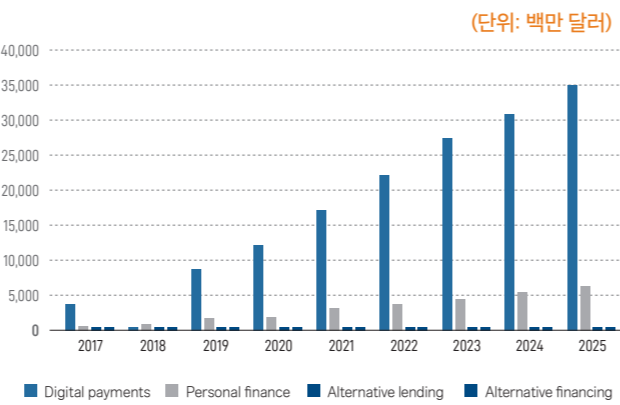
조희문 |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위탁연구역역은 중미지역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살펴보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3개국의 금융환경을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진출 방안 모색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연구 내용은 먼저 중미지역의 금융부분, 디지털 금융, 보험시장 등 금융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중미지역의 핀테크 산업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지역 핀테크 부문별 사용자 수 추이



중미지역 핀테크 부문별 거래금액 추이



파나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파나마 금융시장의 국제화 동향 및 핀테크 산업 등 금융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파나마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의 자본시장 현황과 함께 재보험 감독원 등의 보험시장 현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나아가 금융시장 진출시 고려사항 및 파나마의 디지털 정부 전환 노력 등을 분석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파나마 시장 진출 전략을 제안했다.

코스타리카 금융시장 연구는 금융시스템 제도 및 구조의 분석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현황과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예금보호제도, 은행 감독 제도 등 포용적 금융 및 보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법 제도 정비 지원 등 한-코스타리카 금융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 투자 전략, 세제 정책 등의 금융정책,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금융 포용 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전자결제 시장 등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신용보증증절차, 보증상품 등 신용보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온두라스 핀테크 시장 협력 사례, 신용보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 및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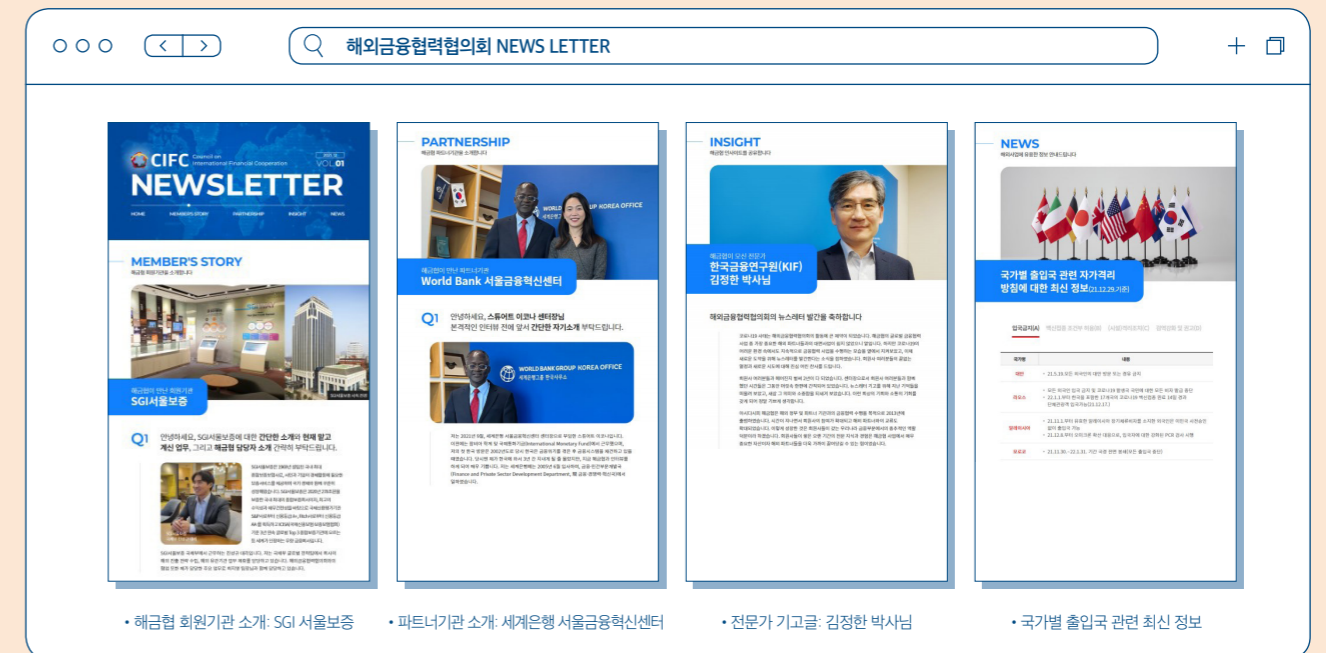
기타사업

해금협 뉴스레터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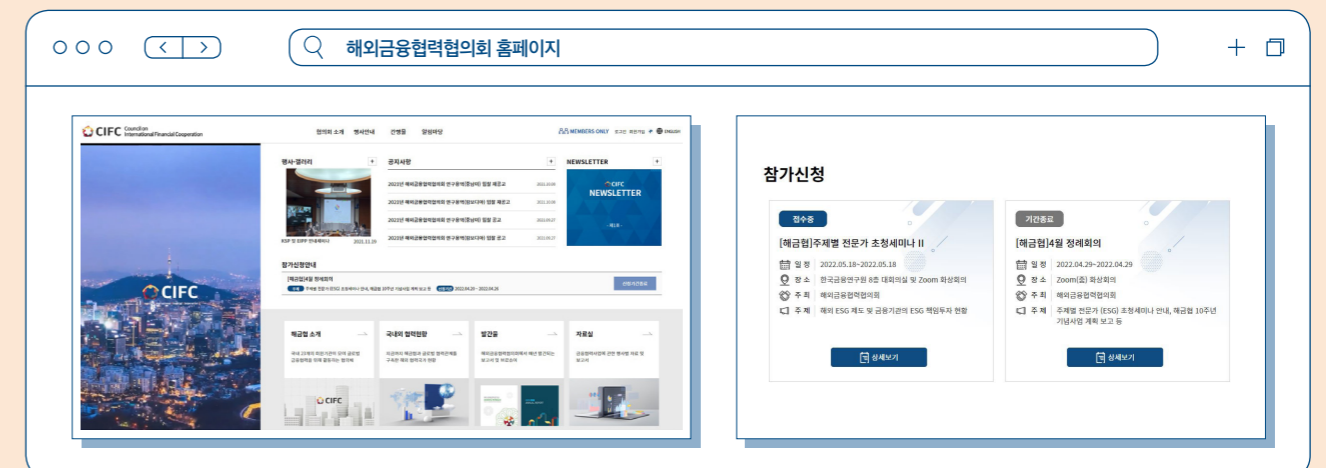
▶ 해금협 뉴스레터 발간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12월 해금협 회원기관 및 파트너기관 인터뷰 등을 온라인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하여 해금협의 주요활동 및 정보를 회원기관에게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 CIFIC 뉴스레터 창간호에서는 해금협 회원기관인 SGI서울보증 소개, 해금협 파트너기관인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소개, 해금협 5대 센터장을 역임하신 김정환 박사님의 축하 기고글, 국가별 출입국 관련 자가격리 방침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수록하였다.



▶ 해금협 홈페이지 개편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2021년 해금협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자모드 기능 개발 및 추가를 위해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세미나 참가신청, 직관적인 메뉴구성과 디자인, 각 디바이스들의 인터페이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등을 구현하였다.



정례회의 및 워크숍

01

1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1월 29일(금) 15:00~16:0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21기관 / 33명
안건	2021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계획에 대한 회원기관 의견 조사, CIFC 간행물 발간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논의

02

2월 2021년도 정기총회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5:00~17: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온-오프라인)
참가자	24기관 / 40명
안건	2020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1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2021년도 운영규정 개정안, 2021년도 연회비 납부 의결, 신임 감사 및 총괄간사 임명

03

3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15:00~16:0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가자	21기관 / 32명
안건	2020년도 국영문 연간보고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주제별 전문가 초청세미나 I 개최 (안), CIFC 뉴스레터 발간 계획안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04

4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15:00~16:0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8기관 / 25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0년도 국문 연간보고서 발간, 2020년도 영문 연간보고서,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경제담당관 초청세미나 개최(안), 베트남 연구용역 논의

05

5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5:00~16:3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참가자	18기관 / 30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0년도 영문 연간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자료 공개여부 수요조사 결과,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세미나 개최 및 UN PRI 소개 세미나, 베트남 연구용역 논의

06

6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5:00~16:30
장소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 및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21기관 / 30명
안건	SGI서울보증보험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가입 의결,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공유, 베트남 연구용역, 중미경 제통합은행(CABEI) 세미나 개최 논의

07

7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7월 30일(금) 15:00~15:3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8기관 / 23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베트남 연구용역,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CIFC 뉴스레터 발간, 로고 디자인 변경 추진안 논의

08

8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15:00~15:3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5기관 / 20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캄보디아 및 중남미 금융시장 연구용역, 뉴스레터 발간, 로고 디자인 변경 추진 논의

09

9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9월 30일(금) 15:00~15:45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7기관 / 24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로고 디자인 변경 추진, 캄보디아 및 중남미 금융시장 연구용역, 워크숍 개최 추진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0

10월 정례회의 및 워크숍

일시	2021년 10월 29일(금) 15:00~16:0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21기관 / 28명
안건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1년도 위탁 연구용역 사업, 지식공유사업 안내 세미나, 회원기관 공동 초청연수, 2022년도 국제포럼 및 현지 포럼 사업 논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10주년 사업계획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1

11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3:30~14:1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4기관 / 21명
안건	캄보디아 및 중남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2년도 회원기관 해외사업 계획 및 일정 조사 추진, 주제별 전문가 공동연수 기획, 해외금융협력협의회 10주년 사업계획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12

12월 정례회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13:30~14:10
방식	Zoom(줌) 화상회의
참가자	19기관 / 27명
안건	2022년도 회원기관 해외사업 계획 및 일정 조사, 캄보디아 및 중남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베트남 연구용역 최종평가 계획, 해외금융협력협의회 2022년도 사업계획 수요조사 논의 및 기타 공지사항 전달



발행일 2022년 4월 30일
발행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층
전화 02-3705-6279
팩스 02-3705-6288
홈페이지 www.cifc.or.kr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에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